

■ 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 종사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 발급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0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 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제외토록 하였고, 같은 읍·면·동 지역 내 여러 사업장에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선임지역을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이미 유통·사용중인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전세계 확산

- 아·태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서, 지지성명서 채택

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헌장인 '서울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4월 19일(월)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 25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APOSHO 25)에서 지난 2008년 제정한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모리셔스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서울선언'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세계 노사정 대표자 46명이 서명, 사회 각 주체별 안전보건 실천의지를 담은 최초의 국제적 안전보건 헌장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APOSHO는 4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안전보건 전문기술 회의, 각국의 안전보건전문가 주제발표 등이 이뤄졌다.

공단은 이번 총회기간 중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선언 특별세션'을 통해 각국의 회원기관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을 대표하는 안전보건기관 대표자 25명이 서명한 '모리셔스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모리셔스 성명서'는 지난해 3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서 24개 안전보건 기관이 서명한 '카나리섬 성명서'와 같은 해 6월 서울포럼에서 50개 기관이 서명한 '서울성명서' 11월에 독일에서 16개 기관이 서명한 '뒤셀도르프 성명서'에 이은 네 번째 성명서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서울선언' 채택 이후 국내에 서울선언기념관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사회보장협회와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서울선언' 집행사무국을 설치하고 '서울선언'의 취지확산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